

[QT 세미나]

큐티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상규 목사 / 1999 / 페이지수: 2

큐티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통상 준비 기도를 마친 후 오늘 내게 주어진 성경본문을 서너 번 읽게 된다. 그러는 중에 무언가 깨달음이나 의문의 형태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에 이 큐티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 마음밭의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무성한 마음 그리고 옥토, 여기서 옥토만이 자신이 들을(읽은) 말씀을 깨닫고 지키어 1백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옥토란 어떤 마음의 상태이기에 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복이 있는 마음

옥토란 우선 사람들에게 수없이 밟혀 온갖 철학과 이데올로기의 고정관념에 점유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닐 것이다. 또한 환난이나 핍박에 견디지 못할 내적 유약함을 가진 돌밭과 같은 마음도 아닐 것이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가시덤불밭은 더욱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옥토와 같은 마음일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청결한 마음 등이 옥토인가? 그렇다. 이것이 옥토의 마음상태이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한다. 가난하고, 주리고, 목마른 마음이라고 해서 단순히 빈 마음, 무정형의 마음, 백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 부활의 관점

산상수훈이 복이 있다고 한 마음들은 하나님 지향으로 가득한 마음,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 약속된 메시아 대망으로 간절한 마음, 성령의 감화와 인도에 민감한 마음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해석학적 원리로 해석한 깨달음이 가득 차 주야로 그 깨달은 성경을 마음이 묵상하는 마음(마 13:51,52, 눅 24:26,27,44~48)이 옥토인 것이다.

요컨대 옥토란 아무런 전제(presupposition)가 없는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로 가득찬 마음이요 그 내면 세계가 올바른 해석학적 원리로 틀 잡힌 마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옥토'의 마음으로 큐티 본문을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통해 본문을 읽는 것이다.

심오한 세계를 보는 시력

이러한 해석원리를 통상 신학적 해석(Theological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성경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주로 하여 신·구약을 언약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적 읽기요 해석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큐티 사역자에게는 회개와 내적 치유 및 경건서적 읽기 등을 통해 마음을 정결하고도 비옥하게 유지하는 것과 아울러 신·구약 전체를 신학적으로 관통하여 깨닫게 해 주는 책들도 정기적으로 읽어 자신의 마음을 더욱 틀 잡힌 옥토로 기경하며 성경의 심오한 세계 그 심층까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력을 길러야 한다.

* 출처: QT신문